

세계적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키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기현·동국 “EPL 개막축포 쏜다”

프리미어리그 오늘 밤 개막

‘스나이퍼’ 설기현(28·레딩)과 ‘라이언 킹’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개막 축포를 터트리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설기현은 12일 자정(이하 한국시간·MBC ESPN 생중계)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펼쳐질 지난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힘겨운 원정 경기를 앞두고 출격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오른발 뒤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설기현은 그동안 꾸준한 재활프로그램과 휴식을 통해 몸을 만

설, 부상서 완전회복 맨유전 출격 준비이, 두차례 실전투입 본격 골사냥 나서

들었고, 최근 치른 프레시즌 경기에 세 차례 선발출전해 두 경기를 풀타임 소화했다. 골이 없었던 게 아쉽지만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돼 실전을 치를 준비를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을 얻었다.

맨유 원정을 앞두고 설기현의 선발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측면 공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렌 리블리(아킬레스 부상을)를 제외하고 있지 못해

실전투입 준비를 마친 게 다행이다.

지난 시즌 ‘노골’에 그쳐 선발 요원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동국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제리미 알리다이에르와 산리 토키아 등 재능있는 젊은 공격수들이 새로 팀에 가세한 만큼 시원한 골로 주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만 한다.

이동국은 2007 아시아컵 출전에 따른 공백으로 팀의 전지훈련에 제대로 참가하지 못해서다. 그나마 5일 AZ 알크마르(네덜란드)와 프레시즌 경기에 후반 20분 투입돼

실전투입 준비를 마친 게 다행이다.

지난 시즌 ‘노골’에 그쳐 선발 요원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동국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제리미 알리다이에르와 산리 토키아 등 재능있는 젊은 공격수들이 새로 팀에 가세한 만큼 시원한 골로 주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만 한다.

한편 토트넘의 이영표는 이번 주부터 재활훈련을 끝내고 본격적인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지만 프레시즌 경기에서 나가지 못해 경기감각이 떨어진 상태여서 11일 선덜랜드와 원정 개막전 결정이 확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황제의 벙커샷

타이거 우즈가 10일미국 오글라호마주 서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1라운드 18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최경주 ‘황제 처럼’

PGA 챔피언십 첫날 ... 우즈와 공동 23위

한국인 최초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챔피언을 꿈꾸는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PGA 챔피언십 첫날을 중위권에서 시작했다.

최경주는 10일(한국시간)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골프장(파70·7천131야드)에서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로 개막된 제 89회 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보기 2개에 버디 1개를 곁들여 1오버파 71타를 스코어 카드에 적어냈다.

5언더파 65타를 치며 깜짝 선두로 나선 그레이 스톨(잉글랜드)에 6타 뒤진 공동 23위. ‘필드의 말쑥꾼’ 존 델리(미국)는 3언더파 67타를 쳐 단독 2위로 치고 나가 모처럼 어깨를 활짝 폈다.

10번홀에서 시작한 최경주는 전반에 2타

를 잃은 것이 아쉬웠다. 이븐과 스코어를 지켜 나가던 최경주는 15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더니 16번홀(파4)에서 또 1타를 잃었다. 좀처럼 타수를 만회할 기회를 잡지 못하던 최경주는 7번홀(파4)에서 버디를 낚아 남은 라운드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다.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4오버파 74타, 공동 70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대회 네번째 우승을 노리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버디를 4개나 잡았지만 보기도 5개를 기록해 1오버파 71타로 시작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3오버파 73타로 공동 53위에 자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2세 소녀 8강행 파란

미 여자아마골프선수권

알렉시스 톨슨(미국)이 미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초로 12세 나이에 8강에 올라 파란을 일으켰다.

톨슨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인디애나주 카벌의 크룩트스틱 골프장(파72·6천595야드)에서 열린 매치플레이 16강전에서 리제트 살라스(18·미국)를 5홀 차이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올해 107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 12세 선수가 8강에 이름을 올린 것은 톨슨이 처음이다. 앞서 열린 2라운드에서 동갑내기 대만계 펄 진(미국)을 역시 5홀 차이로 따돌렸던 톨슨은 11일 장하나(15)와 4강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다.

지난 해 이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던 재미교포 김벌리 김(17) 역시 8강에 합류했다.

### 사격 은·동메달 추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한국 사격이 2007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한 개씩 추가했다.

이호림(송실대), 인소연(한국체대 졸업), 한유정(강남대)은 10일 태국 방콕 후아막 국립사격장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1천151점을 합작해 1천153점을 기록한 우크라이나에 2점 뒤져 아쉽게 은메달을 땀다.

또 이대명(한국체대), 이준희(경기도청), 하길용(대구백화점)은 남자 50m 권총 단체전에서 1천627점을 쏘 러시아(1천658점), 우크라이나(1천637점) 다음으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인소연은 여자 공기권총 개인전 본선에서 386점을 쏘 2위에 올라 메달 기대가 컸지만 결선에서 91.4점에 머물러 총점 477.4점으로 7위에 그쳤다.

## 김영현·지인진도 K-1 진출

민속씨름 천하장사 출신 김영현(31)과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지인진(34)이 내주 K-1과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K-1 주회사 FEG 한국지사의 양명규 프로 모터는 10일 “김영현, 지인진과 다음주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큰 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미 마쳤고 세부 조건에 대한 내용만 조율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영현은 종합격투기 진출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고, 세계권투경연회(WBC) 페더급 챔피언이었던 지인진도 K-1 진출을 위해 최근 한국권투위원회(KBC)에 타이틀반납서를 제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양 프로모터는 우선 김영현에 대해 “K-1에서도 유명 헤비급 격투기 선수 못지 않게

그를 대우를 해 줄 것이다. 계약 기간은 2~3년 정도로 1년에 최소 세 차례 이상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현의 계약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홍만(27)이 2004년 K-1에 데뷔할 때의 계약보다는 나은 조건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은 당시 2년 계약에 7억 원 안팎을 받았다.

K-1 측은 또 지인진이 세계 챔피언 출신인 점을 감안, 지난 해 2월 세계복싱협회(WBA) 전 슈퍼페더급 챔피언 최용수(35)가 K-1 무대에 진출할 당시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용수는 종합격투기로 진출할 때 K-1과 3년 계약에 10억 원을 받는 조건에 합의했다.

## 본즈 756호 홈런 공 소유주 “공 안팔겠다”

8일(한국시간) 터진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미국프로야구 통산 최다인 756호 홈런공을 습득한 뉴욕 청년 매트 머피(22)가 “공을 안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

머피는 10일(한국시간) 지상파 방송 NBC ‘투데이 쇼’와 인터뷰에서 “한편으로는 팔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팔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본즈의 홈런은) 미국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고 이 공은 너무도 소중한 다”고 말했다.

이 공을 팔 경우 머피가 내야할 세금이 35%. 가령 60만달러에 팔린다면 21만달러는 세금으로 내고 39만달러는 머

피의 몫이 된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본즈의 756호 홈런공이 소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머피가 공을 습득했을 때부터 이미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보고 미리 그 공에 대한 세금을 매겼다. 결국 머피가 공을 팔지 않더라도 일정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본즈의 경우 스테로이드 복용과 관련된 위증 혐의로 사법 처리 될 경우 불의의 가격 폭락할 수 있어 머피가 과연 끝까지 공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즈의 홈런공은 경매 시장에서 최대 100만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토)

- ▲메이저리그(뉴욕Y-클리블랜드)(07:55·Xports), (미네소타-LA에인절스)(11:05·Xports)
- ▲제37회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13:00·KBSN Sports)
- ▲K리그(상무-성남)(15:05·MBC)
- ▲프로야구(현대-삼성)(16:30·KBSN Sports), (두산-롯데)(17:00·MBC ESPN)
- ▲일본 프로야구(주니치-요미우리)(17:50·SBS스포츠)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선덜랜드-토트넘)(20:30·MBC ESPN), (미들스브로-블랙번)(23:00·MBC ESPN)

12일(일)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아스톤 빌라-리버풀)(01:00·MBC ESPN)
- ▲PGA 챔피언십 3R(03:00·SBS스포츠)
- ▲메이저리그(오를랜드-디트로이트)(07:55·Xports)
- ▲프로야구(현대-삼성)(16:30·KBSN Sports), (두산-롯데)(17:00·MBC ESPN)
- ▲일본 프로야구(주니치-요미우리)(17:50·SBS스포츠)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첼시-버밍엄)(21:30·MBC ESPN)

13일(월)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 유나이티드-레딩)(00:00·MBC ESPN)
- ▲메이저리그(플로리다-뉴욕M)(02:00·Xports)